

계룡가곡



HOPE

DREAM

- 03** Theme Story
소통하는 기업문화 차이를 만들다
- 05** FOCUS
리슈빌수자인 세종시 최고 경쟁률 기록
- 07** FOCUS
제7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 11** FOCUS
신입사원 1년차 리마인드 워크숍
- 15** FOCUS
2016 드래곤보트 페스티벌 참가 현장
- 17** 건설현장의 미학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 21** 우리가 만들었어요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공사
- 25** 현장리포트
인천국제공항도로관리소
- 29** 생활이 있는 공간
바레인 세계무역센터

- 31** 우리는 가족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현장
김종현 차장 가족
- 35** 멘토, 멘티가 간다
KR산업 재무팀 박재성 주임, 재무팀 윤기훈 사원
- 39** 휴게소로 간다
죽암(부산방향) 휴게소
- 43** 패션아일랜드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담은 아웃도어
- 47** PHOTO TOON
직장인의 적절한 SNS 사용설명서
- 49** TREND
책 웰치에게 배우는 프레젠테이션 기술
- 51** KYERYONG NEWS
- 55** 내 사진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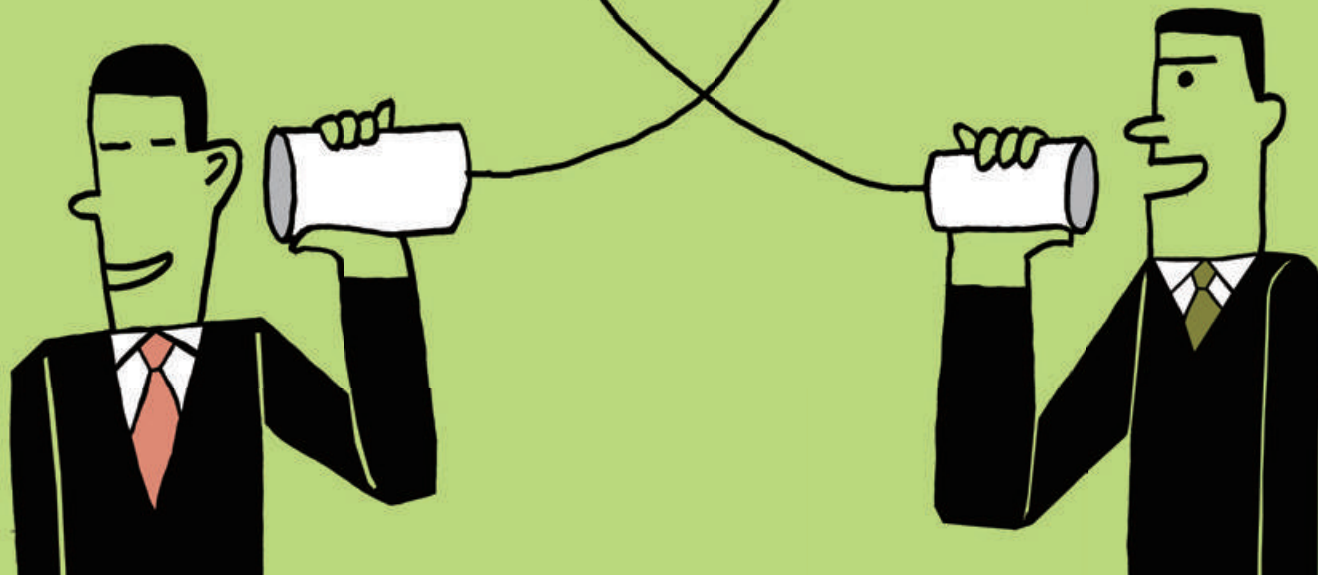
발행처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계룡건설산업(주) 홍보실
기획 홍보실 070.4470.7176
인쇄 유상인쇄
편집 디자인 월간 토마토 042.320.7151

© 본지는 한국 도서잡지윤리위원회
잡지윤리 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2016 Autumn Vol.132

조직의 소통은 때로 우리 몸의 동맥이나 정맥에 비유되곤 한다.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하다면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한두 곳의 흐름만 막혀도 적신호가 울린다. 기업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조직에서의 일상은 소통으로 시작해 소통으로 끝난다. 많은 기업들이 최근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통하는 기업문화 차이를 만든다



일상에서 소통을 실천하는 기업들

“소통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기업 내 소통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바로 ‘두 개의 70%’이다. 첫 번째 70%는 기업 경영자들은 실제로 70%의 시간을 소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70%는 기업의 문제 중 70%는 소통의 장애로 야기된다는 것이다.” 뤼거룽의 『경영의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이와 같이 조직 내 소통의 노력 혹은 소통의 부재는 기업 활동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소통은 조직을 움직이고, 조직의 힘을 키운다.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서로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당연히 기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국적 기업 지멘스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루트를 갖춰 최선의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방대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사내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 웹페이지를 개설해 신입 사원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인 직원 합자 공장, 지역별 링크를 분리해 운영한다. 또 전세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의 지멘스(Siemens Today)’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토론이나 포럼,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매년 ‘직원 정보 소통 회의’를 개최해 회사 정책, 직원 복지, 업무 발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직원 의견을 수렴한다. 건의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참여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주인 의식을 높이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사내 기업가’가 되도록 한다.

임직원 간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룡그룹의 노력

계룡그룹은 창사 이래 임직원 간의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자칫 경직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직원 간 신뢰를 높여 업무에 활력을 더하

며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사내게시판은 본사와 전국 각지 현장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중요한 소통 창구다. 각종 회사 소식과 직원 소식을 전하며, 최신 이슈나 지식을 공유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연중 다양한 워크숍으로 오프라인 소통에도 각별히 신경쓴다. 워크숍은 직급별로 진행해 소통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임원 워크숍, 부서장·현장소장 워크숍, 차장-대리 워크숍, 과장-주임 워크숍,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 등이다. 연중 이뤄지는 멘토-멘티 제도도 임직원 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총무부 정승흠 과장은 “업무를 하다 보면 본사와 현장 간에 갈등은 물론, 직원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마련이다. 워크숍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며 업무에도 시너지를 일으킨다.”라고 취지를 설명한다. KR산업은 연초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마음 교육을 진행한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월례조회는 CEO와 전 직원이 경영현안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사내 동호회도 활발하게 지원, 운영하고 있다. 경영기획팀 서정열 과장은 “2015년부터는 소통 중심의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시도가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한편, 계룡산업은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매년 ‘한마음수련회’를 진행한다. 한마음수련회는 노사화합과 소통의 장이다. 이외에도 입점 업체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차이는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 세세한 경영현안을 직원들과 나누는 자리는 직원들의 적극성을 높이며, 다양한 임직원 교류 프로그램은 직원들에게 활력을 준다. 기업들이 조직 내 소통을 위해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은 기업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

Tip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01. 수시로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 회사에서는 현재 진행상황을 중간 중간 보고하며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혼자 조용히 완벽하게 처리하려 하기보다 중간보고를 통해 상급자와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02.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은 타인이다 직장생활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보다 상대가 어떻게 파악하고 받아들였는지가 더 중요하다. 전달 사항을 보고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식의 정리형 대화로 마무리한다.

03.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커뮤니케이션 사람마다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르다. 어떤 이는 종이 형태의 결과물을 좋아하고, 메일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고하는 것이 편할까요?”라고 정중하게 물어봐도 좋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계룡건설 리슈빌수자인 세종시 498대 1의 최고 경쟁률 기록



계룡건설에서 분양한 세종시 반곡동 세종 4-1 생활권 P2구역 내 리슈빌수자인 M2블록이 성황리에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 10월 6일과 7일에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212가구(특별공급 572가구 제외) 모집에 6만 8,622명이 접수해 평균 323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세종시 최고 경쟁률로 청약 당첨 커트라인도 세종시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다.



세종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

계룡건설은 지난 9월 30일, 세종시 반곡동 세종 4-1 생활권 P2구역 리슈빌수자인 M2블록 건본주택을 오픈했다. 개관 첫날부터 건본주택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건본주택 입장과 관람까지 4~5시간이 소요될 정도였다. 그 결과 평균 323대 1의 경쟁률, 최고 4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모두 1순위로 분양을 완료했다. 리슈빌수자인 M2블록의 인기 요인은 세종에서 가장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주여건이다. 빼어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상업·교육 특화구역과의 인접성 등 생활여건은 세종시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계룡건설만의 특화설계,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다양한 편의 시설도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리슈빌수자인 M2블록은 24개 동, 총 784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84㎡·98㎡·102㎡·105㎡·134㎡로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설계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희소성이 높은 전용면적 134㎡의 펜트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총 6세대를 위한 펜트하우스는 테라스와 다실을 설계해 리슈빌수자인 M2블록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쾌적한 환경, 우수한 정주여건

리슈빌수자인 M2블록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남쪽으로는 괴화산, 북쪽으로는 금강이 자리해 단지 내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수변공원과 근린공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 옆으로는 대전역과 세종, 오송역을 연결하는 BRT 노선 정류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갖췄다. BRT 노선을 이용할 경우 다른 도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앙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구로도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지구 도보통학권 내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개교할 계획이며 인근에 다양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도 들어설 예정으로 뛰어난 교육환경까지 갖췄다. 다양한 쇼핑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리슈빌수자인 M2블록의 장점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예정) 등 상업부지특화구역이 지구와 인접해 편리하게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편안한 생활 세심하게 고려한 설계

세종시 설계공모당선작인 리슈빌수자인 M2블록은 거주자의 편안한 생활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모든 자동차가 지하로 통행하도록 설계해 단지 지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담을 없애 인근 수변공원과 근린시설로도 출입이 자유롭다.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편안한 생활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준비했다. 302동과 303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라프트지에 자리한 게스트하우스와 연회장은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동시설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손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침실, 거실 등을 갖췄다.

실내에서 편리하게 골프를 연습하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골프연습장과 입주민과 자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마련했다. 새로운 개념의 주민공동시설인 창의센터도 설계해 단지 내에서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근린시설과 공원, 건강관리센터, 피트니스센터, 티하우스 등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리슈빌수자인 M2블록 분양관계자는 “리슈빌수자인이 4-1 생활권 첫 분양 물량인데다 설계공모를 통한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춰 세종시는 물론 광역 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라며 “세종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라는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성실 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연에서 추억을 그리는 아이들

제7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아이들이 저마다 마음껏 솜씨를 뽐낸다. 그림을 그리고 글짓기를 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지난 10월 9일 유림공원에서 제7회 유림공원 사생대회가 열렸다. 개회식을 위해 아이들이 무대 앞으로 모이자 이인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계룡건설 명예회장)이 주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인다. 올해 주제는 ‘국화향 그윽한 유림공원의 가을’이다.

유림공원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유림공원 사생대회는 지난 10월 9일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열렸다. 계룡장학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도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매년 사생대회를 열고 있다. 그리기와 글짓기 2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와 가족 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구 이사장과 이사들이 자리해 유림공원에 모인 아이들을 격려했다. 강용구 계룡장학재단 이사는 대회를 시작하며 “맑고 푸른 가을날 유림공원 사생대회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를 환영한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해 더 큰 인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가 진행된 유림공원은 2007년 이인구 이사장이 본인의 희수를 기념해 사재 100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대전시에 기부한 도심 속 명품공원이다. 수려한 조경으로 지난 2010년에는 제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림공원 사생대회에 참여한 아이들의 작품에는 자연이 가득하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유림공원 사생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은동에서 온 구자미 씨는 “학교나 학원에서는 보통 아이가 자료나 사진을 보며 그림을 그린다. 자연을 유심히 관찰할 기회가 없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가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연을 볼 수 있는 사생대회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추억을 만드는 사생대회

유림공원 사생대회는 대전을 대표하는 어린이 사생대회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아이들은 대회에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든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동생과 함께 유림공원을 찾은 노은고등학교 한유경 양은 유림공원 사생대회에 특별한 기억이 있다고 말한다.





“저도 유림공원 사생대회에 참여한 적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림 그리는 동생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동생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림공원 사생대회를 위해 대전을 찾은 아이도 있다. 세종한솔초등학교 5학년 김지민 양은 “올해로 4번째 참여한다.”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사 간 후로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참여하게 돼서 좋다.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계룡장학재단은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페인팅과 아트프론트 등 다양

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계룡그룹 계열사도 함께했다. 계룡산업에서는 반창고세트를, 패션 아일랜드에서는 물티슈를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아이들의 작품은 계룡장학재단이 별도로 구성한 심의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시상식을 열어 총 142명 학생과 1개교에 상금 총 1,160만 원을 지급했다. 수상 작품은 작품집으로 발간해 수상자들에게 배포했다. 🌈



황순옥
내동

제7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사진첩

아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에서 유림공원 사생대회에 대해 소개받아 처음 참여했습니다.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 나들이 온 것 같네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직접 준비했어요. 기대가 많이 됐나 봐요.

유림공원은 친구들과 몇 번이나 와서 놀던 곳이에요. 올 때마다 정말 멋진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추억이 있는 곳을 그리니 좋아요.

강민석
대전어은
초등학교



장예진
한밭
초등학교

엄마한테 꼭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화축제 때 왔던 유림공원에서 사생대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족과 함께 나와 그림을 그리니 더 즐거웠어요.

이서율
대전어은
초등학교

저는 물레방아와 꽃이 있는 호수를 그리고 있어요. 예쁜 국화가 있어서 풍경이 너무 예뻐요. 열심히 완성해서 엄청 멋진 그림을 그릴 거예요!



첫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다

계룡건설 신입사원 1년차 리마인드 워크숍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신입사원 1년차 리마인드 워크숍’이 열렸다. 일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계룡건설 신입사원들은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며 들뜬 기색이 역력하다. 동기들의 안부를 묻고 업무 고민을 나누는가 하면, 처음 입사 때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신입사원 1년차 리마인드 워크숍은 이렇듯 신입사원들이 ‘초심’을 다지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반갑다! 동기들아

계룡건설에서는 매년 가을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본사와 전국 현장에 흩어져 있던 신입사원들이 1년만에 동기들을 만나 업무에 관한 고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다. 총무부 정승흠 과장은 “입사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신입사원들이 어느 정도 각 부서와 현장에 적응한 시기이다. 오랜만에 동기들과 모여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도 나누고, 서로 힘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리마인드’라는 말에는 사회인으로서 처음 마음가짐을 되새겨보자는 의미를 담았다.”라며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한다. 올해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첫째 날 오전 9시, 계룡건설 본사 사옥 앞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입사한 총 42명의 신입사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만에 만나 인사 나누고 안부를 묻는 모습에 본사 사옥에는 어느 때와 다르게 더 큰 활기가 느껴진다. 신입사원은 다함께 버스에 올라 워크숍 장소가 있는 강원도 영월군으로 향했다.

세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조선의 5대 왕인 단종의 무덤이 있는 ‘영월장릉’이다.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이며, 사적 제196호로 지정됐다. 신입사원들은 장릉까지 이어져있는 오솔길을 오르며 모처럼 자연에서 산책하는 여유를 갖는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여러 종류의 나무가 뽑아내는 피톤치드를 한껏 마시며 숨도 크게 들이쉬어 본다. 동기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이 무척 소중하다. 장릉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뒤에는 점심식사로 영월의 명물인 곤드레밥을 먹으며 첫째 날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후에는 워크숍 숙소인 동강시스타로 이동해 객실을 배정받은 뒤 래프팅 장소인 영월을 문산리로 이동했다. 래프팅은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서도 신입사원들이 가장 기대했던 시간이다.

“오늘 래프팅은 총 연장 9km를 내려가며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수량이 많은 편이라 더 안전하게 래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쌀쌀한 만큼 수온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과도한 물싸움은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들은 래프팅을 시작하기 전 강사로부터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을 듣고, 구령에 맞춰 다함께 10분 간 준비운동을 했다. 노 젓는 법에 관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들은 뒤에는 헬멧, 구명조끼 등을 단단히 착용하고 조를 나누어 보트를 들고 강으로 이동했다.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되는 우리

“하나, 둘! 하나, 둘!” 신입사원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강을 타고 울려 퍼진다. 구령에 맞추어 물살을 따라 노를 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신입사원들은 두 시간동안 함께 노를 저으며 팀워크를 다졌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웃음을 나눌 동기가 있다는 게 소중하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래프팅을 마친 후에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준비됐다. 이 시간을 통해 신입사원들은 입사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소중한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함께 그리는 10년 후 회사의 미래 구상’이라는 주제로 롤링페이퍼를 진행하며 회사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왔고,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나누었다.

첫째 날 일정은 저녁만찬을 하며 마무리했다. 진중길 부장은 만찬에 앞서 “그동안 동기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이런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겠다 생각했다. 이 시간을 통해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올해 3월과 6월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짧게 자기소개를 하며, 다시 한 번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보냈다.



성큼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둘째 날은 가볍게 축구를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신입사원들은 잔디밭에서 함께 뛰고 땀 흘리며 동기들과 우의를 다지는 동시에 잠시나마 머리를 비웠다. 축구경기가 끝난 후에는 강당에 모여 간단한 소감문을 작성하며 워크숍의 모든 일정을 정리했다. 다음에 만날 날을 기억하는 신입사원들의 얼굴에는 서로를 격려하는 웃음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계룡건설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은 앞으로도 매년 발전한 모습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정승흠 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신입사원 리마인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발전시킬 것이며, 신입사원들을 격려하고 초심을 다진다는 기본 취지를 잘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입사원 1년차 리마인드 워크숍 현장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들



10년지기 친구를 만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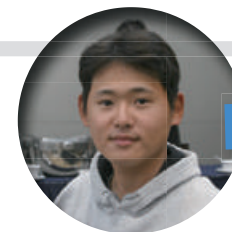
이제 입사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다같이 모이니 10년지기 친구를 다시 만난 듯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본 듯 친숙해요. 입사 때 보고 각자 자리에서 일 하다가 만난 동기들의 발전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여러 고민을 하는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일하며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현 사원(마곡 중앙공원 현장)

임우람 사원(하남미사 17공구 현장)

정말 반가워요. 올해 3월 입사하여 오랜만에 동기들 만나 안부도 묻고 각자 현장 얘기도 하니 정말 좋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탔더라고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 온 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회사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동기들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살갑게 느껴져요. 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동기는 특별하게 다가오네요. 앞으로도 동기들이 어딜 가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일년 만에 숙 자란 우리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동기들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첫째날 래프팅 때 오랜만에 뭉쳐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머리를 비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 입사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기들이 일 년 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서로가 일하는 현장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점도 많고요, 이렇게 만나서 편하고 유쾌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난다면 좋겠어요.

김택수 사원(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차 건립사업 현장)

일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다들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입사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었는데, 리마인드 워크숍에서 만나 얼마나 사회생활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달라진 걸 느껴요.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아요. 첫째 날 래프팅이 정말 좋았어요. 평소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동기들과 함께해 더 재밌고 재충전한 느낌이에요. 동기들에게 지금처럼 뭉쳐서 끝까지 함께하자고 전해주고 싶어요.

심기보 사원(인천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현장)

3월 입사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 정말 반갑고요. 다른 시기에 입사한 신입사원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겨서 좋습니다. 동기들 얼굴이 많이 까무잡잡해진 걸 보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워크숍 때 만나서 서로에게 뭐하고 지내느냐는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잘 지내는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정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초심을 돌아보며 ‘리마인드’가 된 것 같아요. “동기들이야,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20년 뒤에 본사에서 만나자!”

유병용 사원(세종2-1 더하이스트 현장)

끝까지 함께 갑시다



20년 뒤에 본사에서 만나자!



둥, 둥, 둥! 북소리에 맞춰 물살을 가르다

2016 드래곤보트 페스티벌 참가 현장

“둥, 둥, 둥!” 갑천의 물살을 가르며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 함께 힘차게 구령을 외치며 노를 젓는 계룡건설 직원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향한 결의가 가득하다. 한편에서는 경기를 지켜보는 계룡건설 직원과 가족들의 응원 열기가 뜨겁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2016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은 계룡건설 직원과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치러졌다.



승리를 향한 12명 선수의 결의

드래곤보트는 용선(龍船)이라고도 불린다. 한 배에 10~20명이 탑승해 북잡이의 북소리에 맞춰 스피드를 겨루는 경기다. 1976년 홍콩에서 시작해 중국 전통 축제에 내려오던 배를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시킨 스포츠 종목이다.

지난 10월 22일에서 23일까지 이틀간 대전 엑스포 수상공원 일원에서 2016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이 열렸다. 계룡건설은 대전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체육발전과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후원과 일반부 참가를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계룡건설 직원 12명이 대회에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올해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에는 학생부 30개 팀, 대학부 10개 팀, 일반부 30개 팀, 전국부 20개 팀 등 총 90개 팀이 참가했다. 경기 진행 방식은 300m 토너먼트로 진행했다. 드래곤보트에 키잡이 1명, 북잡이 1명, 노잡이 10명 등 기본

12명이 승선해 결승지점에 먼저 들어오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엑스포 수상공원 일원은 페스티벌 시작 전부터 참가팀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북적였다. 계룡건설의 대회 참가를 축하하는 듯 맑고 화창한 날씨에 엑스포 수상공원은 더욱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오전 9시 반, 계룡건설 선수 12명은 출전에 앞서 몸을 풀기 위한 준비운동을 하고 다함께 손을 모아 파이팅을 외쳤다. 올해 처음 경기에 출전하는 신입사원들의 얼굴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하다.

경영정보실 박슬기 사원은 “연습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마지막 연습 날 서로 호흡을 잘 맞췄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된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국방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현장 김한일 사원 또한 “연습때만큼 실력을 잘 발휘하면 좋겠다. 준결승 진출은 문제없다.”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비쳤다.

함께여서 더 값졌던 시간

일반부 예선은 10시에 시작했다. 계룡건설팀은 예선 2조에 배정돼 두 팀과 함께 자웅을 겨뤘다. “둥둥, 계룡! 둥둥, 계룡!” 12명 선수가 용선에 승선해 출발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징과 팽과리를 동원해 선수들을 격려하는 응원팀의 분위기도 점점 고조됐다. ‘탕!’ 출발 신호가 울렸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계룡건설팀은 초반부터 선두를 점하며 다른 팀들을 크게 앞질렀다. 힘차게 물살을 가르던 계룡건설팀은 1분 39초 77의 기록을 세우며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해 준결승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일반부 준결승 경기는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계룡건설 직원들은 휴식시간 동안 다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며 잠시나마 긴장을 푸는 시간을 보냈다. 준결승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선수들은 다시 한 번 준비운동을 하며 결승 진출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준결승에서는 2조 4번 레인으로 배정돼 네 팀과 함께 실력을 겨뤘다. 3등을 한 팀까지 결승에 진출할 예정이었다. “둥, 둥, 둥” 기세 좋게 출발해 다른 팀과 2등 자리를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던 계룡건설팀은 아쉽게도 결승지점에서 순위를 내어주고 말았다.

“결승에 진출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년엔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기들과 함께 연습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 값지게 느껴집니다.” 회계부 전진후 사원의 말에 이어 국방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현장 김태현 사원도 경기를 마친 소감을 말했다. “3월에 입사해 다른 시기에 입사한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친해져서 좋았어요. 비록 결승에 못 가서 아쉽지만, 계룡건설 직원들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승 진출은 놓쳤지만, 청명한 가을 날씨에 계룡건설 선수 12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없이 빛나게 느껴지던 날이었다. 🌤

백년대계 국가안보교육시설 건립 안전과 소통의 현장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논산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3,000여 명 인구 유입 및 각종 고용, 생산 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계룡건설은 해당 사업에 주관사로서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준공까지 차질 없는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방대 이전 사업 현장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회사 컨소시엄으로 주관사로서 현장을 이끌고 있어 책임감이 무척 큰 현장이기도 하지요. 본 현장은 기관 특성상 주거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병영시설, 종교시설 등 5가지 성격의 복합적인 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으로 계룡건설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현장 박갑순 소장의 설명이다. 현재 공정은 80% 이상 진행돼 주요 공정은 모두 마친 단계이며, 꼼꼼하게 마감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공사 마무리, 차질없이 진행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는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장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준공 시기가 내년 5월께로 늦춰졌다. 현장은 2014년부터 공사를 앞두고 문화재 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7월경 공사 중 문화재가 토출돼 한때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됐다. 한편 내년 이전 개교 시까지 정주여건이나 교통환경 개선 등이 불투명해진 것도 준공 계획이 지연된 요인이 됐다.

“국방대가 이전 개교하면 교직원·학생·가족·관련 업종 종사자 등 최소 3,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주 및 기반 시설 설치와 전용체력단련장 조성사업 등이 변경 또는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이 불가피하게 늦춰졌습니다. 비교적 큰 규모의 기관이 이전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세세하게 챙기고 점검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이지만, 올해 12월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위한 국가 역점 사업

국방대학교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이전 사업이 결정됐다. 그리고 2007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논산 이전을 결정했다.

이후 2009년 6월 국방부와 국방대, 충청남도과 논산시 등 4개 기관이 이전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국방대 이전 위치를 양촌면 거사리로 확정하면서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된 것은 2013년 12월이다. 총 5개 회사 컨소시엄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했으며, 계룡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은 충남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대 69만 7207㎡(21만여 평) 부지에 3,500여억 원을 투입해 교육시설 5동, 주거시설 20동, 종교시설 4동, 근무지원시설 36동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논산시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착공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4년 11월 24일 기공식을 열며 논산 이전 결정 7년 만에 첫 삽을 떴다.

가을이 오면 가을에 깊이를 더하는 Book & Music List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노래 부르면 떠난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 지나간 노래를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호젓하게 차 한잔 하며 책 한 권 펼치고 싶은 계절입니다. 국방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현장 직원들이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와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짧기만 한 이 가을, 그냥 떠나 보내긴 아쉽지 않나요?

BOOK LIST

채사장 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국방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정민형 기사

“정치, 경제, 역사,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지식에 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설명한 책입니다. 여러 분야에 흥미가 생기게 하고 더욱 알아보고 싶게 만드는 방식이 같은 책이기에 추천합니다.”

알랭 드 보통 저, 『불안』

국방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김태현 기사

“무더운 여름이 었그제 같이 느껴지는데, 어느덧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은 생각에 잠기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바깥이 아닌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들 한 번씩 조용히 사색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 추천합니다.”

설민석 저,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국방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김한얼 기사

취업준비 하던 시절 스펙 한 줄 추가하기 위해 한국사 공부를 했습니다. 취업을 위한 공부로 시작했지만, 제가 한국사에 너무 무지했다는 걸 깨닫고 기본적인 역사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기본적인 역사 지식을 알아두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USIC LIST

임창정의 〈이별 후〉

국방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조경민 주임

“가을엔 날씨 탓인지 새로운 사랑에 빠지거나 이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발라드가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이 노래는 떠나 보낸 연인에 대한 감정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슴 아리게 표현한 곡입니다. 작곡가 김대현과 최명희 그리고 임창정이 힘을 합쳐 만든 곡이라고 하네요. 단풍이 물들고 있는 가을, 가슴 아픈 발라드 한 곡, 남자의 고독을 느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떠나간 옛 여인을 떠올리지는 마세요!”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국방대 이전사업시설공사 오명석 기사

“달달한 사랑 노래입니다. 가을에 단풍놀이를 하며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코드도 매우 쉬우니 캠핑을 가서 기타를 치며 분위기를 ‘업’시키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이 노래를 들으며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 만들러 떠나 보면 어떨까요?”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국방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이성환 기사

“가을엔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라는 노래를 추천합니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정현돈이 열창한 노래이기도 하죠. 가을은 사랑과 이별의 계절인가 봐요. 이 노래를 들으니 옆구리가 허전해지네요.(웃음)”



터키 방식으로 진행해 어느 현장보다도 발주처와 소통을 많이 해야 하고 주관사로서 책임감도 크다. 또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정착할 다양한 관계자들의 요구사항도 수시로 조율하고 반영해야 한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시로 관련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소집된다. 박갑순 현장소장은 “오늘도 오전 내내 설계회의를 했다.”라며 웃음 짓는다.

무재해 현장 위해 안전에 만전 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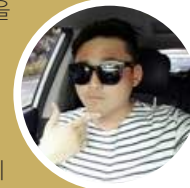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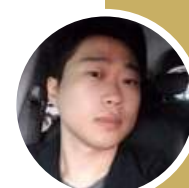
현장 규모가 큰만큼 현장을 관리하는 직원 수도 비교적 많다.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총 44명의 팀워크를 잘 유지하는 것 또한 관건이다. 박갑순 현장소장은 현장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 회의를 열어 어려운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매일 간단한 미팅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독려해주며, 필요한 때는 본사에 적절한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팀을 이끈다.

“여러 외부 여건들 때문에 금년에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다행히 팀을 독려하고 직원들 또한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줘서 내부 예정대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에 늦게 발령받은 최범규 과장, 강용철 과장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어려운 현장에 어려운 시기에 와서 정말 묵묵히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박갑순 소장은 소장실보다는 직원 사무실에 머무를 때가 더 많다.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늘 격려하고, 각자 업무에서 곤란한 분쟁을 맞닥뜨리고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기도 한다. 자연스레 많은 대화가 오간다.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현장소장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직원들이 먼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시로 각자 업무도 챙겨주고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현장을 자주 돌아봐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안전은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예상 준공 시점으로부터 100일이 남은 지난 7월 말부터는 ‘100일 무재해 운동’에 돌입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덕분에 지금까지 큰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앞으로 목표 원가와 무재해 현장을 달성하기 위해 준공 때까지 원가관리와 안전에 관해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생각합니다. 12월 말 공사 대부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모든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에게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늘 주저하지 말고 얘기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늘 소통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양 가좌의 문화 공간을 만들다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공사

도서관 및 보건지소는 지역 주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공간이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KR산업에서 시공한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는 오랫동안 고양 가좌 주민이 기다리던 공간이다.



| 공사기간 | 2014.12.29.(착공) ~ 2016.04.21(준공)
| 위치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88-24번지 | 대지면적 | 1,622㎡
| 연면적 | 4,723.74㎡ | 건축면적 | 907.16㎡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자연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는 자연에 녹아든 공간이다. 도서관과 맞닿아 있는 가좌근린공원이 건물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진입로 경계를 없앴다. 공원에서 도서관으로 걸어들어 올 수 있는 산책로도 조성했다.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 공원을 멀리 우회해야 했던 기존의 산책로에 작은 길을 만든 거다. 산책로는 황톳길로 조성해 숲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공원에서 2층 부출입구로 들어오는 길에는 숲속마당이라는 도서관 내 작은 공원을 조성해 도서관과 공원을 연계했다. 주민들이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다.

가좌초등학교, 송포초등학교, 송산중학교, 가좌고등학교 등 4개 학교와 아파트 주거 단지가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 도서관 맞은편으로는 상업시설도 준비하다. 가좌동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이기에 도서관의 모든 담과 턱을 없애고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으며, 재생에너지를 재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구조다. 옥상 휴식 공간 옆에 조성한 태양광진열판은 도서관에 전기를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소다.

지하 우수저장소도 재생에너지를 위해 준비했다. 비가 오면 지하 우수저장소에 빗물을 저장해 건물 중수시설을 통해 화장실 등에서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유리창도 전면 로이유리를 사용했다. 로이유리를 통해 햇빛이 들어오면 열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여름에도 냉방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냉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는 현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도서관 개관 한 달 후 인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는 가좌동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 주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건의와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동준 소장은 인근 학교 학부모와 정기 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각 학교 행정실과도 회의를 했다. 학교에서 보수가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공사소음으로 인한 상업시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를 찾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인근에 학교가 많은 가좌도서관은 공사현장 주변으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통행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 KR산업 직원들은 인근 3개 학교 어머니회와 함께 직접 등하교 지도를 하며 교통정리를 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한 결과 안전사고 없이 시공을 완료할 수 있었다.



매 층이 다른 복합공간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는 층마다 면적이 다른 입체감 있는 건물이다. 전 층에 빛이 골고루 잘 들어와 모든 공간이 환하고 쾌적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 층이 같은 평면인 아파트와 달리 층마다 평면이 다른 도서관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층마다 구획, 골조가 다릅니다. 각 공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공간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했습니다.”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 김동준 소장은 각 층의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다. 각 층의 평면과 용도에 맞게 다양한 공사를 시행했다. 2층 어린이 도서관은 유아와 초등학교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에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벽면과 카펫 등 모든 부분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마감재를 사용했다.

3층은 디지털자료실이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전자 기기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악세스 플로어로 바닥을 시공했다. 지역 주민이 주민자치 활동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교실, 시청각실이 마련된 4층은 다양한 시설이 함께 있는 만큼 패브릭 마감재를 사용해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꾸몄다.

전 층에 테라스와 휴게데크를 구성한 점도 가좌도서관의 특징이다.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닌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으로 도서관을 꾸몄다. 1층에 있는 숲속마당 테라스에는 벤치를 설치해 주민들이 쉬어가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도서관에 비치되는 책은 지하에 있는 보존서고에서 분류작업을 거쳐 2, 3층 도서관으로 배급된다. 책이 보관되는 동안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존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 습기와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지하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선큰으로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건물과 흙이 닿는 면을 띄운 선큰으로 지하도 채광이 풍부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했다.

1층 보건지소는 기본적인 시설만 구축했다. 미관보다는 의료 장비를 쉽게 이동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다. 주로 노약자가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불편함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모든 턱을 없앴. 휠체어,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17일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가 개관했다. 개관식에서는 오랜 염원이던 도서관을 사고 없이 아름답게 조성한 것과 관련해 고양시청에서 KR산업에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도서관 및 보건지소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완공했을 때도 주변 주민들과 아이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의 모범사례를 만들다

인천국제공항도로관리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국내외 이용객들이 출국과 입국 시에 거치게 되는 고속도로로, 여타 현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이다. KR산업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부터 16년째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해오고 있으며, 타 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에서도 모범사례로 삼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민자고속도로 평가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 번 신뢰를 공고히 했다.



01 표지판 점검
02 노면 물 청소

민자고속도로평가 1위의 현장

KR산업은 1987년 설립 이래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휴게시설 운영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최고 가치에 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 왔다. 또 주요 핵심 사업인 도로·공항·터널·교량 등 4개 부문 유지관리사업에 있어 전문화를 통한 고유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로 유지관리의 전문화와 유지보수 작업의 기계화, 전산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속도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KR산업은 지난 2000년부터는 국내 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으로, 그만큼 KR산업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형성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봄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평가에서도 1위를 하며 발주처의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KR산업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도로관리소 김광재 소장의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로시설물의 일상관리 및 점검, 재해 사전대비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안전관리, 제설 및 결빙예방작업, 교통사고피해시설 안전관리 및 원인자 미확인피해시설 복구, 발주사 및 계약상대자 장비 관리·운영 등이다. 현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까지 걸쳐 있으며, 본선 36.5km, 지선 3.7km를 포함해 총연장 40.2km에 해당한다. JCT 5개소, IC 3개소 등 총 8개소의 진출입시설, 3개 영업소(신공항, 북인천, 청라영업소), 영종대교와 방화대교 등의 시설물까지 포함한다.

위기대응 업무 중점, 24시간 대기할 때도

“구체적으로 보자면 포장, 가드레일, 시선유도시설, 표지판, 안전시설물 등 고속도로상에 있는 모든 토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장 인원은 관리자, 운전원, 작업원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관리자들은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 계획 수립, 실적 보고 등을 포함해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운전원은 포장보수, 시설물보수 등 실제로 장비를 운영해서 현장 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작업원은 운전원을 보조하여 현장 보수 업무를 하

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입니다. 각종 사고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긴장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특성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민한 대응과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공항 고속도로 특성상 통행량이 적어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르고, 사고가 났을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크다. 현장 직원들이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작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비상상황이나 제설상황 때는 밤샘 작업을 하는 일도 많다. 특히나 안개, 강풍, 폭우, 폭설 등 기상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24시간 대기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지난해 2월 해무로 인한 저시정으로 발생한 영종대교 연쇄 추돌 사고 이후로는 위기대응 업무에 더 중점적으로 임하고 있다.

무사고에 안전 기할 것

“동절기인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일년 중 가장 긴장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동절기를 대비해 11월 1일부터 제설 준비에 들어갑니다. 봄·가을은 춘추계 정비기간입니다. 봄에는 동절기 동안 파손된 시설물들을 집중 보수하고, 가을에는 동절기에 대비해 미비한 부분들을 추가 보수하고,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사계절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차량들의 통행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공항고속도로는 실제로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도 위험한 현장이다. 작업 차량이 달려오는 외부차량에 추돌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작업 중에도 늘 안전을 위해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안전에 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이곳 현장에 부임한 이후로 작업 후방에 사인카를 두 대씩 배치하고 에어사인보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시설물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 시에도 직원들에게 늘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관리소 현장직원들은 365일 불철주야 긴장 속에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평소 일상에서 안전하게 이용하며 당연한 듯 지나쳤던 현장 뒤에는 숨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신경쓰게 되는 건 직원들의 건강입니다. 유지관리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직원들 중에는 중년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건강하게 오래 근무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직원들이 건강해야 현장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도 작업 중 무사고, 현장 무사고에 만전을 기하며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관리 현장 직원을 만나다

01
김용로
사원

현장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2000년에 입사해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해왔고, 지난 2013년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힘든 점이 있지만 가족같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일하는 덕분에 큰 안전 사고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은 겨울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설장비를 점검해서 늘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 없이 대기해야 하죠.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가능하면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을 복구해야 하니까요. 앞으로도 현장을 지금처럼 화목하게 유지하면서 모두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했으면 합니다.

02
심재용
사원

베테랑 직원으로 구성
호흡이 척척 맞는 현장

1997년에 입사해 개통 때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관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로더 등 유지보수에 동원되는 여러 장비들을 책임지고 운전하는 일을 합니다. 저희 현장은 다른 관리소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직원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일을 할 때도 손발이 척척 잘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다 보니 늘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 직원들이 화합해서 무사고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
홍승락
사원

전세계인이 이용하는 곳
으뜸 현장 만들 것

2000년도에 입사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를 운전하는 게 주업무이고, 상황에 따라서 팀을 꾸려 협업도 진행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중에서도 대표격이기도 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국내 이용객은 물론 세계에서 온 분들이 이용합니다. 그만큼 더 신경을 쓰게 되지요. 아무래도 기상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 날 새벽에 날씨가 안 좋다고 하면 전날부터 잔뜩 긴장을 합니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현장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일하기에 힘을 얻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이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안전이 늘 걱정됩니다. 모두가 안전에 유의하며 일하길 바라고, 지금까지 해왔듯 으뜸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 IT의 만남

지능형 건물 시스템

바레인 세계무역센터

사람은 언제나 공간에 있다. 공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 건축이 중요한 이유다. 이렇듯 중요한 건축이 최근 IT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능형 건물 시스템(이하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IBS란 건축물 규모나 용도에 맞게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각 시스템의 안전성과 확장성으로 빠르고 안전한 정보 서비스가 이뤄지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 유지관리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청 신청사, 성남시청,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소개할 바레인 세계무역센터도 IBS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세계 최초로 풍력발전 시스템을 도입했다.



세계 최초로 풍력발전 시스템 도입

바레인 마나마에 위치한 바레인 세계무역센터는 지난 2006년 착공해 2008년 완공했다. 건물은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한 건축설계사 애틀킨스에서 설계했다. 시공은 덴마크의 람볼에서 맡았다. 현재 이곳에는 쇼핑센터와 고급 레스토랑, 비즈니스 센터, 헬스클럽 및 스파 등이 입점해있다.

바레인 세계무역센터는 완공 전부터 세계 건축계의 관심을 받았다. 바레인 세계무역센터 이전까지 대규모 풍력발전 시스템 도입을 성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건물에 대규모 풍력발전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윈드 터빈 개발비만 전체 건축비의 3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했었다. 대규모 풍력발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었던 이유다. 그에 반해 바레인 세계무역센터는 전체 건축비의 3.5%만을 투자해 풍력발전 시스템을 도입했다.

바레인 세계무역센터가 성공적으로 풍력발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하나는 바레인의 특수한 자연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능적인 건축 구조다.

이 건물은 두 채로 이뤄진 타워 사이에 50m짜리 풍력 터빈을 세 개 설치했다. 이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구조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바레인을 이해해야 한다.

바레인은 위도 26도에 위치한다. 아열대고압대 영향으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기후다. 때문에 연교차보다는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 사이의 비열차가 발생한다. 낮이 되면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된다. 육지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돼서 상승기류를 생성한다. 바다는 고기압이 돼서 하강기류를 생성한다. 이로 인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해륙풍이 생성되는 거다. 바레인의 특수한 자연환경이란 바로 이것이다. 정리하자면, 바레인 세계무역센터가 자리한 곳은 페르시아만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다.

지능적인 건축 설계로 발전효율 극대화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바레인 세계무역센터는 효율적으로 모아낸다. 지능적인 건축 설계를 통해서 말이다. 이를 설명하려면 먼저 벤츄리 효과를 알아야 한다. 벤츄리 효과란 공기의 속도가 넓은 곳을 통과할 때는 느려지고, 좁은 통로를 통과할 때는 더욱 빨라지는 성질을 말한다.

바레인 세계무역센터가 바로 벤츄리 효과를 이용한 사례다. 두 채로 이뤄진 쌍둥이 타워는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곡선형이다. 멀리서 보면 뿔처럼 생겼다. 또한 각 타워는 45도 각도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이러한 지능적인 건축 설계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수직 상승해 풍력 터빈을 돌린다. 발전효율을 극대화한 설계인 것이다. 실제로 이곳의 전체 발전 시간 중 절반 정도는 풍속 15~20m/s 이상의 바람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최고 효율로 발전한다. 이는 건물의 전력수요 중 10~15%를 충당할 정도로 많은 전력이다. 1년으로 보면 대략 1300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건데, 매년 300가구 정도에 전력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양이다. 과거, 건축은 개발이라는 아젠다의 상징적인 결과물이다. 그리고 개발의 대척점에는 환경이 있었다. IBS는 이러한 아젠다 구조를 깨트렸다. 이제 건축은 개발을 상징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환경을 상징하는 결과물이 되고 있다. 🌍

친구에서 연인으로

세 아이의 가족으로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현장 김종현 차장 가족

김종현 차장이 오랜만에 가족들과 나들이에 나섰다. 오랜 현장 생활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김종현 차장은 물론 아이들도 기분이 좋다. 분홍색으로 웃을 맞춰 입은 엄마 유근영 씨와 둘째 김혜원 양은 친구처럼 스스럼이 없다.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김해찬 군과 김혜원 양의 손을 꼭 잡은 막내 김혜윤 양. 이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든든하다.

든든한 지원군, 아이들

“오늘이 우리 막내 생일이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이벤트 같은 작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여섯 번째 생일을 맞은 김혜윤 양은 기분이 좋은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아빠, 엄마 손을 이끌고 솔로몬로파크 이곳저곳을 누비며 질문도 많다. 이런 막냇동생 곁을 큰아들 김해찬 군과 둘째딸 김혜원 양이 지킨다. 막냇동생이 귀여운지 해찬 군이 볼을 꼬집자 혜윤 양이 새초롬하게 토라진다. 이 모든 모습이 김종현 차장과 아내 유근영 씨에게는 행복이다.

전국에 퍼져있는 조정현장으로 발령이 잦은 김종현 차장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더 크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김종현 차장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자 든든한 지원군이다. 모두 엄마를 도와 자신의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기에 믿음이 가고 고맙다.

“아이들에게 고마운 점이 많아요. 큰 아이들이 막내를 잘 돌봐 주는 게 너무 고맙죠. 막내는 둘째가 받은 키워 준 거예요. 첫째와 둘째도 사이가 돈독해요. 한참 사춘기인데도 엄마도 잘 도와주고요. 아이들이 밝은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큰아들인 김해찬 군은 유난히 밝은 아이다. 유치원 때 해맑은 상을 받을 정도로 웃음이 많고 긍정적이다. 오빠와 달리 둘째딸 김혜원 양은 푹 부러지는 성격이다. 맡은 일을 스스로 해내고 세 아이를 양육하며 카페를 운영하는 엄마를 보필한다. 동생도 살뜰히 보살핀다. 김종현 차장은 성숙한 혜원 양 덕에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오빠, 언니가 부모님의 지원군이라면 막내 김혜윤 양은 분위기 메이커다. 늦둥이 혜윤 양의 재롱 덕에 언제나 온 집안에 웃음꽃이 가득하다.

“아이가 셋인데 저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집이 더 화목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노는 것만 봐도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힘들고 피곤하다가도 집에서 아이들 까르르 웃는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돼요. 가족이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그런 존재네요. 아이들에게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꿈으로, 계룡건설

올해로 입사 13년 차인 김종현 차장 삶의 모든 순간은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해원 양이 태어나면서 계룡건설에 입사했고, 해운 양이 백일을 맞이한 날 차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월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현장으로 전입한 김종현 차장은 김포택지조경 현장, 남양주별래택지조경 현장 등 많은 현장에서 조경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김종현 차장이 조경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건 아버지의 권유 덕분이었다. “사실, 제가 조경 전문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 했어요. 고등학생 때는 전자기기와 컴퓨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엔지니어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학 원서를 내기 한 달 전에 슬며시 조경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원예학과에 입학했고 자연스럽게 조경 전문가라는 꿈을 키우게 됐다. 대학 졸업 후에는 대전에 있는 조경전문 회사에서 근무했다. 조경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계룡건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다양한 건축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계룡건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내 계룡건설에서 조경 경력직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당시 조경 경력직을 단 한 명 뽑았어요. 경쟁이 치열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당히 입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김종현 차장은 계룡건설에 입사하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 조경팀에는 그를 포함해 직원 두 명이 전부였다. 적은 인원이었기에 더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업무를 해내야 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회사가 훌쩍 커져 있었고 조경팀도 함께 성장했다. 조경이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사회 추세에 맞춰 활동영역도 커졌다. 지금은 13~14명 정도가 조경팀에서 일하고 있다.

“조경팀에 애뜻한 감정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시작해서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무언가를 일궈낸 기분도 들고요. 앞으로도 부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친구에서 연인으로, 부부

캠퍼스 커플로 만나 4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김종현 차장과 유은영 씨는 같은 과, 같은 학번 동기다.

“처음에는 데면데면한 사이였어요. 말도 별로 한 적 없었어요. 남편과 친해지게 된 건 4학년 때였어요. 남편이 여학우들과 사이가 좋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죠. 그렇게 친구로 지내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남편은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애정표현이 많지는 않지만 성실한 사람이죠. 그 모습이 좋았어요.”

애정표현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은 누구보다 적극적인 그였다. 연인 시절 월평동에 살던 김종현 차장은 판암동에 사는 아내를 만나러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아침에 다시 데리러 가느라 하루가 짧았을 정도다.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밤새 통화를 하고 나서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를 태우러 판암동으로 향했죠. 그렇게 함께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요.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4년이란 오랜 시간을 연인으로 지내던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한 일등공신은 바로 시아버지다. 어느 날, 김종현 차장과 유은영 씨를 시아버지가 불러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곳이 바로 예식장이었다. 밝고 씩씩한 유은영 씨가 마음에 들었던 시아버지가 발 벗고 나서서 두 사람의 결혼을 재촉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매일 하고 있어요. 아직은 티가 안 나지만 앞으로는 인정받고 싶네요. 우리 남편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구나 하고요.



“사실 심란했죠. 결혼식 날짜도 예식장에서 잡은 거예요. 그때 제가 27살이었는데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하고요.(웃음)”

고민이 많던 유근영 씨는 4년 동안 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결혼을 결심했다. 자연스럽게 정해진 날짜가 다가왔고 어느덧 결혼 17년 차 부부가 됐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부부에서 부모로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두 사람 곁에는 이제 세 아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있냐고 묻자 김종현 차장이 “오랜 시간 자신의 옆에서 자상한 아내로 현명한 어머니로 열심히 살아 준 아내를 보면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한다.”라며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아내가 서운한 게 많을 거예요. 혼자서 아이 셋을 도맡아 키웠거든요. 앞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려고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매일 하고 있어요. 아직은 티가 안 나지만 앞으로는 인정받고 싶네요. 우리 남편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구나 하고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 유근영 씨는 김종현 차장의 마음이 고맙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같이 살아봐서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10년 장기근속 때 받은 패가 집에 있어요. 오랫동안 큰 목표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온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남편이 가정과 회사에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박재성 주임

윤기훈 사원

일도 삶도 나란히 같은 그림을 그리는 멘토와 멘티

KR산업 재무팀 박재성 주임, 재무팀 윤기훈 사원

따뜻한 햇볕이 기분 좋은 10월의 가을. KR산업 재무팀에서 함께 일하는 멘토 박재성 주임과 멘티 윤기훈 사원이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으로 산책을 나섰다. 초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는 두 사람은 함께 도자기를 만들고 공방을 구경한다. 책상도 나란히 사는 곳도 나란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은 대화가 없어도 편안한 사이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저희는 자리가 붙어있어요. 그래서인지 선배는 제가 한숨 쉬는 타이밍을 알더라고요.(웃음) 제가 힘들 때는 먼저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하자고 하세요. 커피 마시는 5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시 일할 힘이 나더라고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직무를 맡은 박재성 주임과 윤기훈 사원은 일하는 자리도 나란히 붙어있다. 자리가 가까운 만큼 서로의 상태도 가장 잘 알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윤기훈 사원을 옆에서 가장 많이 챙겨주는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박재성 주임이다. 후배가 힘이 부치면 선배가 나서서 끌어주고 도와준다. 올해 3월에 입사한 윤기훈 사원이 타지인 이천에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배가 제 옆 건물에 살아요. 선배가 지금 사는 집을 소개해줬거든요. 입사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선배가 괜찮은 곳이 있다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입사 후 살 곳을 알아보던 윤기훈 사원에게 박재성 주임은 자신이 사는 원룸을 소개했다. 직접 살아봤기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살게 됐다. 박재성 주임은 후배에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팁도 자세히 알려줬다. 청소하기 힘들니 큰 집은 피할 것. 대출 낀 집이 아닌지 확인해 볼 것. 집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볼 것. 이 모든 조언은 박재성 주임 본인이 타지생활을 하며 몸소 배운 점들이다.

“윤기훈 사원도 대학생활 동안 독립해서 살아봤으니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선배로서 낯선 곳에 온 후배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윤기훈 사원은 후배 일에 발 벗고 나서주는 선배를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든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도보로 5분. 짧은 거리지만 함께 출퇴근하며 일상적인 대화부터 직장생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대화는 끝이 없다.



묘하게 닮은 그림

점심 식사 후, 이천 사기박물관 도예촌으로 향한 박재성 주임과 윤기훈 사원이 앞치마를 입었다. 도자기는 처음 만들어 본다는 두 사람이지만 막상 붓을 드니 금세 그림 그리기에 빠져든다. 박재성 주임은 한번에 굵은 선을 적적 그리고, 윤기훈 사원은 꼼꼼하게 그림을 덧칠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그림은 묘하게 닮았다.

“재무팀의 가장 좋은 점은 회사 직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거의 다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부서 직원의 얼굴과 이름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기훈 사원이 첫 부서로 재무팀에 오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모든 게 낯선 신입사원 시기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자주 보는 게 회사에 적응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 재무팀에서 회계 업무를 맡으며 어려운 점이 많았던 박재성 주임은 행여 후배가 첫 직장 생활을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아직 모든 일이 낯선 윤기훈 사원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분기마감, 결산, 감사까지 재무팀의 특성상 바쁜 시즌이 있다. 회사 전체 회계를 책임지고 신고하는 일이니 작은 부분도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 이를 아는 윤기훈 사원도 처음 맡은 재무업무가 어렵고 부담된다. 입사해서 가장 많이 한 걱정이 ‘세무신고’를 했는데 실수한 부분이 나오면 어찌나’였다. 이런 고민을 들어주고 아낌없이 조언해준 게 바로 멘토 박재성 주임이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가 1분기 마감 기간이었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했죠. 그때 선배가 많이 도와줬어요.”

처음 맡는 중요한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후배를 위해 박재성 주임은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을 점검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며 윤기훈 사원을 독려했다.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살뜰히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윤기훈 사원이 너무 조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배들도 후배들이 실수하지는 않을까, 일을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늘 챙기고 있으니까요.”

미래의 모습, 멘토

두 사람이 지금처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점심시간의 힘이다. KR산업 본사 4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함께 탁구를 치는 동안에는 동료에서 친구가 된다. 축구를 좋아하는 박재성 주임과 야구를 좋아하는 윤기훈 사원, 좋아하는 스포츠는 다르지만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함께 몸을 움직이며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푼다. 함께 할 때면 언제나 힘이 난다.

“윤기훈 사원과는 회사 동료로 만났지만 밖에서는 형, 동생하는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형, 동생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윤기훈 사원은 오랜만에 들어온 KR산업 신입직원이다. 처음 들어온 후배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건 아닌지 박재성 주임은 걱정이 많다. 직장상사보다는 친한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윤기훈 사원도 “저도요”라며 웃는다. 다른 부서에서 회계 업무와 관련된 일을 묻는 전화가 오면 막힘없이 설명하는 선배의 모습이 멋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후배에게 선배의 노련함은 배우고 싶은 부분이다.

“제가 선배를 잘 따라다녀요. 아마 5분에 한 번씩은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도 귀찮아하지 않고 자세히 알려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후배가 슬며시 속마음을 꺼내자 박재성 주임이 “난 따라다니며 물어봐서 오히려 좋다.”라며 멋쩍은 웃음을 짓는다.

“윤기훈 사원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힘든 점이 많겠죠. 저도 부족한 게 있지만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재무팀에서 일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랜 직장생활 동안 함께 웃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KR산업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한 거예요. 그리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윤기훈 사원이 입사한 거고요. 그만큼 열심히 배워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최고의 휴게소

계룡산업에서 운영하는 죽암(부산방향) 휴게소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전국 어느 휴게소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롯데리아 Drive Thru를 비롯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화장실 등이 이번 리모델링의 핵심 포인트다. 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혁신적으로 변화한 죽암 휴게소를 차근차근 둘러보았다.

지난 1993년 준공 및 오픈한 죽암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를 대표하는 휴게소로서 20년 넘게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가 발생되었고, 객장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고객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룡산업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리모델링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롯데리아 Drive Thru다. 한국도로공사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Drive Thru를 입점시켰다는 사실은 리모델링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죽암휴게소 운영회 소장은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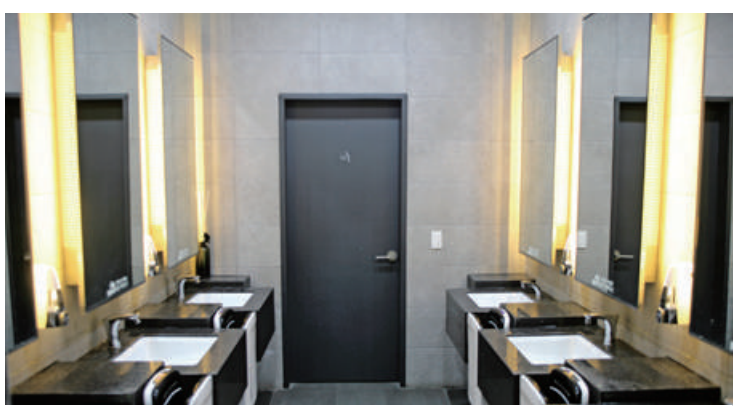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는 어딘가를 놀러가거나 놀러갔다 오는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도 계시지만, 업무나 출장 등으로 1분 1초가 아까운 고객도 많습니다. 롯데리아 Drive Thru는 그렇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Drive Thru를 설치한 후 실제 이용 고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설치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도입한 스마트 화장실도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얼굴은 화장실이다.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대다수가 음식은 안 먹어도 화장실은 꼭 간다고 말한다. 화장실 상태에 따라 휴게소의 이미지도 달라진다. 그런 맥락에서 윤정희 소장은 “이번 리모델링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도 화장실”이라고 답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 개선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혁신과제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호텔급의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휴게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거죠.”

구체적으로 죽암 휴게소는 이번에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모니터를 화장실 입구에 설치했다. 화장실 이용객은 일일이 화장실 문을 노크할 필요 없이 모니터만 확인하면 빈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현대적인 편리성을 겸비한 거울 형태의 스마트미러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은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밖에도 죽암 휴게소 화장실은 자연친화적인 청정함과 모더니즘한 인테리어로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선물하고 있다.



최상의 고객 만족도를 선사하는 휴게소

죽암 휴게소는 건물 외부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우선 기존의 낡은 아치형 케노피를 전면 철거했다. 대신 시원하고 감각적으로 디자인한 케노피를 설치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외부에 넓은 데크와 파라솔을 설치해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했다.

내부 인테리어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실내매장을 시원하게 넓혀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안한 동선을 제공했다. 전체적인 색감은 블랙&화이트로 현대적이면서도 시적이고, 또 한층 젊어진 분위기를 연출했다. 매장 내부의 테이블도 1인석, 2인석, 4인석, 6인석까지 다양하게 배치했다. 가족 단위 이용객은 물론이고 나홀로 여행하는 이용객도 휴게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휴게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도 대폭 리뉴얼했다. 윤정희 소장은 “인지도가 높고 검증된 메이저급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주력했다.”라고 말한다.

“우선 외식산업의 선두주자인 CJ프레시웨이를 유치해 우동, 철판볶음밥, 중식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라면과 분식 메뉴의 대표적인 라면애를 유치했습니다. 더불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직영점을 유치해 메뉴의 다각화를 꾀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롯데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윤정희 소장

이중에서도 파리바게트는 휴게소 특성에 맞게 샌드위치와 음료 카운터를 매장 전면배치하고, 테라스존을 넓혀 ‘GRAB&GO 매장’으로서 특화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죽암 휴게소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윤정희 소장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전국 최고의 휴게소로 거듭난 만큼 고객 서비스에서도 최고의 휴게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장실, 매장 등 휴게소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고객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도 죽암휴게소에 대한 칭찬 게시물이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축적하지 못했지만, 리모델링 후 매출도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매일수룩 고객 서비스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매일 아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따뜻하게 응대하라고 강조합니다.(웃음) 어쨌든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전국 최고의 휴게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죽암휴게소에 가면 이걸 꼭 먹어보세요!

갈비탕이라고 다 같은 갈비탕이 아니다. 죽암휴게소 왕갈비탕은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한다. 요리 경력 25년 이상의 최고 요리사가 국물을 책임진다.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과 부드러운 갈비살 특유의 씹는 맛이 일품이다. 어느 요리프로그램에서는 죽암 휴게소 왕갈비탕을 평하며 “서울에 5대 갈비탕집이 있는데 그곳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맛”이라고 했단다. 설명은 여기까지다. 그 맛이 궁금하면 직접 한 번 맛보시길!

패션아일랜드에서 만나는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담은 아웃도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여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운동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들의 생활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면서 아웃도어 패션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과 아웃도어의 기능을 결합한 제품이 유행을 패션 트렌드다. 약속이 있는 날에도 가볍게 꺼내서 입을 수 있는 아웃도어 제품을 패션아일랜드에서 만나보자.

디자인을 살린 아웃도어 코오롱 스포츠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길 좋아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디자인 요소를 강화한 아웃도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맛났했던 패딩과 재킷에 라인이 살아나고 다양한 프린트가 가미된 제품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 스포츠가 'PLAY' 컬렉션을 선보였다. 코오롱 스포츠가 개발한 신 소재를 활용해 두툼한 패딩을 획기적으로 압축했다. 가벼움에 집중한 초경량 패딩 재킷인 키퍼는 얇은 두께감으로 다른 옷과 레이어링이 자유롭고 휴대가 간편하다. 자연을 담은 아웃도어라는 코오롱 스포츠의 특징을 살려 이번 시즌에는 이글을 모티브로 한 컬렉션을 출시했다. 티셔츠, 스웨터, 재킷 등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아웃도어 의류에 독특한 요소를 추가해 단조롭지 않다. 이글 컬렉션은 수익금 중 일부를 멸종위기인 독수리 먹이주기 활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패션아일랜드 신규 입점 소식

+ 루이카스텔 LOUIS CASTEL

세계 최초 메스티지 브랜드 루이카스텔이 패션아일랜드에 입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골프웨어 루이카스텔을 만나보세요.

KOLON SPORT

여자 1.이글스 자수 재킷 28만5천 원 2. 길이감이 있는 남방 9만9천 원 3.초경량 바지 18만 원 4.통풍이 잘되는 스니커즈 25만 원
남자 5.Play 이글스 재킷 26만 원 6.베이직 맨투맨 12만9천 원 7.정장용으로 활용 가능한 바지 18만 원 8.통풍이 잘되는 스니커즈 25만 원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트렌디한 아웃도어 패션

패션아일랜드 F/W시즌 아웃도어 패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촬영에는 KR산업 비서실 최수지 사원, 유통사업팀 최병제 사원이 함께했습니다. 📷

THE NORTH FACE

노스페이스

에어플러스 재킷
15만 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맨투맨
7만9천 원
신축성이 좋아 활동이 편한 바지
11만8천 원
끈이 없어 신고 벗기 편한 신발
7만5천 원
오피스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가방
13만 원

노스페이스

에어플러스 재킷
11만8천 원
부드러운 소재의 가벼운 맨투맨
6만5천 원
신축성이 좋아 활동이 편한 바지
11만9천 원
가벼움이 특징인 신발
7만9천 원
수납공간이 넓은 가방
13만 원

K2

다양하게 레이어드 가능한 패딩
20만9천 원
쿠션감 있는 맨투맨
7만9천 원
신축성이 좋아 착용감이 뛰어난 바지
12만9천 원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신발
신발 29만9천 원

K2

슬림다운으로 라인을 살린 패딩
24만9천 원
경량 네오프렌 소재 맨투맨
7만9천 원
기능성과 보온성을 살린 바지
17만9천 원
충격 흡수 소재를 탑재한 신발
신발 24만9천 원

콜롬비아

세련된 사파리 스타일 재킷
27만8천 원
도통해 겨울까지 활용 가능한 니트
5만8천 원
신축성이 좋아 활용도 높은 바지
17만8천 원
가벼운 운동화
10만8천 원

콜롬비아

깔끔한 사파리 스타일 재킷
21만8천 원
활동성이 좋은 니트
5만8천 원
신축성 좋은 바지
16만8천 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운동화
14만8천 원
수납공간이 넉넉한 가방
13만8천 원

패션아일랜드 네이버쇼핑 입점!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패션아일랜드 쇼핑이 가능해졌다. 지난 5월 4일 패션아일랜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쇼핑에 입점하며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바쁜 일상으로 쇼핑에 자유롭지 못한 직장인과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트렌드세터들을 위한 희소식이다. 입점과 동시에 총 85개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6,000개 이상 상품이 등록되어 빠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01

PC or 모바일 주소창으로 들어가기

www.fisland.co.kr/naver

02



네이버 메인에서 '쇼핑'



네이버쇼핑



이올렛윈도



'패션아일랜드' 접속

03

QR코드로 들어가기



직장인의 적절한 SNS 사용설명서

PHOTO TOON은 직원 여러분이 직접 출연해 직장 생활의 애환과 에피소드를 사보제작팀에서 재미있게 각색해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겪은 에피소드와 경험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전달해주세요. 에피소드로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호 포토툰에는 계룡산업 죽암(부산방향)휴게소 최영기 주임, 박재현 주임, 오현국 대리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



잭 웰치에게 배우는 프레젠테이션 기술

세계 최고 기업 제너럴일렉트릭의 최연소 최고경영자

세계 최고의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이하 GE)은 잭 웰치가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1960년 GE에 입사한 잭 웰치는 독특하면서도 뛰어난 경영 방식으로 승진을 거듭했다. 1981년, 마침내 최연소로 GE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당시 GE의 회사가치는 120억 달러였다. 그리고 2001년, 잭 웰치가 퇴임할 당시 GE의 회사가치는 4,500억 달러였다. 최고경영자로 재임하며 회사가치를 40배 상승시켜놓은 것이다. 이러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2001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영의 달인'으로 불렸던 잭 웰치에게는 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있었다.



정보 전달 기술의 노하우

최연소로 GE 최고경영자에 올랐던 잭 웰치는 “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하라”는 경영 전략으로 1,700여 건에 달하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성사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6시그마 · e비즈니스 · 세계화’ 등의 전략으로 GE를 강력하게 혁신했다. GE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다.

강력한 경영 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GE는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잭 웰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를 극복했다. 잭 웰치는 시각적인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회사의 비전과 계획을 주주, 경영진, 직원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를 통해 청중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결국 성공적으로 회사 구조조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잭 웰치의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이, 어떻게 달랐던 걸까. <잭 웰치처럼 프레젠테이션 하라>라는 책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책에서는 잭 웰치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책에서는 전달 기술 노하우를 설명한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려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하다. 첫째 서 있는 자세를 연습해야 한다. 친구나 동료와 이야기할 때도 양쪽 발을 어깨넓이보다 좁게 벌리고, 균형 있는 자세로 똑바로 선다. 둘째 몸동작을 연습해야 한다.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에게 시선을 맞추고, 상대의 몸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셋째 손동작과 얼굴 표정을 연습해야 한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잘 어울리면서도 세련된 표정과 손동작을 개발하고 익힌다. 넷째 시선 맞추기 연습을 해야 한다.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청중이라 생각하고 각 가구마다 시선을 주며 연습한다. 다섯째 무대 활용 연습을 해야 한다. 혼자 서 있는 공간을 무대라고 생각하고, 무대를 이동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전달 기술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한다.

기억에 남는 프레젠테이션의 조건

책에서는 기억에 남는 프레젠테이션의 조건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우면 의미 없다는 얘기다. 둘째 간략하고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 좋은 이야기도 길면 지루할 수 있다. 셋째 청중의 입장과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넷째 시각화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의 묘미는 시각화에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글보다는 사진과 차트 등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다섯째 결론이 명확하고 감동이 있어야 한다. 실컷 이야기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다. 여섯째 발표자가 열정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작은 목소리나 소심한 동작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떨어트린다.

프레젠테이션만 잘한다고 해서 잭 웰치 같은 ‘경영의 달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분명 잭 웰치의 경영 전략 중심에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

최고의 프레젠테이션가 되기 위한 9가지 전략

TIP

1. 정보와 자료 수집 능력을 키워라.
2. 정보와 자료 분석 및 가공 능력을 키워라.
3.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혀라.
4. 전문가의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해 그들의 장점을 습득하라.
5. 충분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하라.
6. 전달 기술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라.
7. 많은 실전 경험을 하라.
8. 늘 청중의 입장과 욕구를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라.
9. 자신감과 열정을 가져라.

계룡장학재단, 2016년 3/4분기(제95회)장학금 5천8백여만 원 지급



계룡장학재단(이사장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은 지난 8월 31일 87명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2016년도 3/4분기 장학금 58,800,800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장학금은 2016년도 전체 장학금 174,203,200원 중 일반장학금 제3 회분으로 온라인으로 송금 지

급됐다. 1992년 12월 재단 설립 이래 이번 회까지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3,867명 장학금 53억1천여만 원에 달한다.

제7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시상식 수상자 142명에게 총 1,160만 원 지급



계룡장학재단(이사장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은 지난 10월 29일, 계룡건설 본사 강당에서 이인구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이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 2명에게 총 60만 원, 최우수상 10명에게 총 200만 원, 우수상 30명에게 총 300만 원, 장려상 100

명에게 총 500만 원, 단체상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1,160만 원의 장학금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계룡장학재단 관계자는 “온 가족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사랑받는 사생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장학재단은 이번 시상식과 함께 입상자들의 작품을 모은 별도의 작품집도 발간, 수상자들에게 배

계룡건설, 2016 지상군 페스티벌 후원금 전달



계룡건설은 지난 9월 12일 육군본부를 방문해 이한기 행사기획단장(소장)에게 지상군 페스티벌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계룡건설은 매년 10월 계룡대에서 열리는 육군의 대표 가을 축제 ‘지상군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마다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계룡건설은 “이번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육군의 강인함과 다양성을 국민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군문화축제로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지난 8월에도 육군본부에 예비역 추석 명절 위문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점검훈련인 ‘2016 을지연습’에 임하는 1115공병단 장병들에게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계룡건설 10월 월례조회 우수협력업체 포상 및 준법교육 실시



계룡건설이 지난 10월 10일, 월례조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임직원들은 “수주면에서 전년대비 183%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다.”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남은 2016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무재해 달성 현장 및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먼저 무재해 달성 현장으로는 부천옥길A-1BL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EBS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공사 현장, 세종2-2생활권L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선정됐다. 우수협력업체로는 건용건설(주), (합)안현건설, (주)신일, (주)동우, 윤창기공기술(주), (주)구상건설이 선정돼 포상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는 법무법인 세종 김용희 변호사가 준법교육(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해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줬다.

계룡건설, 기부식품 나눔의 날 행사 실시



지난 8월 30일, 계룡건설 본사에서 제5차 찾아가는 기부식품 나눔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계룡건설 임직원, 권선택 대전시장 및 계룡타워에 입점한 업체(미래생활, 롯데손해보험, 특허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1,200만 원 상당의 라면과 쌀 등 생필품을 기부했다. 기부한 물품은 대전광역시푸드뱅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2016 대전사랑 기업인의 날 행사 후원

계룡건설과 대전시가 후원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2016년 대전사랑 기업인의 날 행사’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대전 출신 출향기업인을 초청해 고향의 정과 애乡심을 고취하면서 출향기업과 대전기업 간 상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계룡건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시와 기업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1사 1도량 살리기 운동 실시



계룡건설은 지난 10월 11일, 흑석동 등골도랑에서 1사 1도량 살리기 운동을 실시했다. 1사 1도량 살리기 운동은 대전시 서구청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도량살리기 공모사업으로, 8개소 도량을 기업체와 1대 1로 연계해 지속적인 도량 내 수생식물식재, 여울 및 습지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으로 계룡건설은 지난해부터 흑석동 등골도랑과 매칭해 꾸준히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계룡건설 HSE 홍성중 부장 외 8명과 서구청 환경과 외 10명이 참석해 정화 활동을 펼쳤다. 지난 7월 장마철 폭우로 도랑에 쌓인 수초를 제거해 물길을 터주고, 적치된 폐비닐, 쓰레기, 나뭇가지 등을 제거했다. 계룡건설은 앞으로도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마을 주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임원·팀장 워크샵 실시



경영진과 간부직원간 스킨십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경영목표 달성과 2017년도 사업구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임원·팀장 워크샵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로 월악산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는 총 37명(임원 19명, 팀장 18명)이 참석하였으며, CEO특강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 및 Vision2020에 대한 세미나, 단합 체육행사와 월악산 등반 등으로 진행되었다.

강일리슈빌S 준공 및 입주 시작



KR산업은 강일리슈빌S를 지난 10월 준공하고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단기간에 100% 분양완료되었던 강일리슈빌S는 강일지구 최고의 입지와 전 세대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해 높은 투자가치로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바 있다. 강일리슈빌S는 10월 28일 입주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0월 31일부터 한 달간 입주를 진행하게 된다.

수원 인계동 오피스텔 추진



KR산업은 수원 인계동 오피스텔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수원 인계동 오피스텔은 지난 8월 29일 매입계약을 체결 이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10월 24일 완료하였다. 인계동 오피스텔은 부지면적 503평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207세대로 구성되었으며, 11월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할 계획이다.

준법교육(청탁금지법 관련) 시행



지난 10월 4일 월례조회 후 본사 지하강당에서 본사 전 직원과 현장소장 및 휴게소장이 모인 가운데 ‘청탁금지법’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하였다. KR산업은 9월에 임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현재 이슈인 ‘청탁 금지법’관련 1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무법인 세종의 김용희 변호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2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천시청, “행복한 동행” 「1인1나눔계좌」 신청서 기탁식 열려



지난 9월 21일 KR산업은 이천시청에서 “행복한 동행” 기부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서 기탁행사를 가졌다. 「1인 1나눔계좌」는 KR산업 전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500여 계좌가 취합되었으며, 매월 일정액의 기부를 통해 이천시 불우이웃을 돕게 된다. KR산업은 이번 1인 1나눔계좌와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이천시와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2영동고속도로 용역계약 체결

KR산업은 지난 10월 20일 「제2영동고속도로 일상보수 및 시스템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1년 11월 착공하였으며, 중부고속도로 광주분기점부터 시작되어 영동고속도로 원주분기점으로 연결되는 총길이 56.95km 왕복 4차선으로 이루어져있다. KR산업은 제2영동고속도로의 일상유지관리와 ITS를 도맡아 수행하게 되며 사업규모는 298억, 용역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26년 연말까지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리모델링 추진



도로공사에서는 올해를 “휴게소 화장실 혁신의 해”로 선포하고 개선회사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KR산업 유통본부에서는 휴게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리모델링 추진방향은 도공의 혁신안과 KR산업의 자체 콘셉트를 접목하여 11월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KR산업에서 운영 중인 평창휴게소는 지난 7월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동계올림픽 테마휴게소로 재오픈하였으며, 휴게소 방문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테마화장실로 꾸며져 이용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 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해 휴게소 방문객들에게 테마가 있고, 청결한 휴게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나의 어린 시절 사진

이번 가을호에서는 신입사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우수작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호 주제는 사내 게시판에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임직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된 분께는 패션아일랜드 10만 원 상품권 또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또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패션아일랜드 1만 원 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1 계룡건설 비서실 이광규

고등학교 2학년때 낙동강으로 수련회가서 강제로 선생님 물에 빠뜨리기 작전 펼치던 모습!

대상



01

02

05

03

06

04

02 계룡건설 총무부 김용규 사원

눈 내리던 날, 첫 눈사람을 만들다

03 계룡건설 환경생태부 조시영 사원

진지함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04 계룡건설 경영정보실 이상호 사원

나이가가라 폭포에서 찍었더니

지금도 이 모습 그대로

05 계룡건설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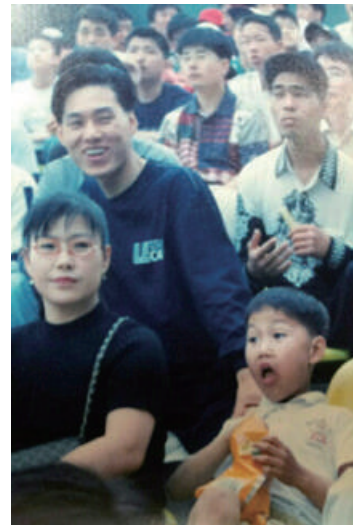
조성공사 엄태웅 사원

엄 씨 가문 2형제, 잘생겼죠?

06 계룡건설 예당저수지

재해예방 물놀이 확장사업 김진교 사원

슈퍼스타K 나갔으면 내가 1등 먹었을거야



11 계룡건설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4공구 조성공사 박수봉 사원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동생 수정이와

12 계룡건설 EBS디지털통합사옥 건립공사현장 김지훈 사원

철없던 시절, 난 두려운 게 없었다

13 계룡건설 부산 해운대 재송2구역 조영남 사원

나도 베토벤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14 계룡건설 진천선수촌 2-2 이수철 과장

35년 전 초등학교 2학년 가을소풍. 친구들이 잘 살고 있지?



07 KR산업 유지관리팀 배재규 과장

돌사진

08 계룡건설 대구금호 A-3BL

아파트건설공사 4공구 김문겸 사원

앞이 왜 안 보이지?

09 계룡건설 노은3지구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임정근 사원

가족들과 생애 첫 야구장 나들이

10 계룡건설 경영정보실 박슬기 사원

길고 길었던 군생활 그 마지막날



오랜 세월
사랑으로 잘 익은 그대의 목소리가
노래로 펼쳐지고
들꽃으로 피어나는 가을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함께 고마워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조금은 불안해도 새롭게 기뻐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 없이 서늘한 가을바람
가을 하늘 같은 사람이 되기로 해요.